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		
배 포 일	2021. 1. 8.(금) 14시	담당부서	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국
책 임 자	김창희 사무국장(T.010-9255-6762)	담 당 자	김경화 팀장(T.3705-5742)

금융산업공익재단, 신상훈 신임 대표이사장 취임

- 금융산업공익재단이 2021. 1. 7.(목)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대표이사장으로 선임했다.
 - － 신상훈 대표이사장은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다양한 근무경험을 쌓은 뒤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고, 성균관 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로 있다.
 - － 신상훈 대표이사장은 “국내 최초로 산업단위에서 노사공동으로 만든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난 2년간 재단의 기틀을 튼튼하게 세운 만큼 이제 ‘행복한 대한민국 금융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’ 는 설립이념을 실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도약할 때가 되었다. 금융교육과 소비자 보호, 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과 코로나19 극복은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장서겠다.” 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.
- 금융산별 노사 합의로 설립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, 2018년 10월 4일 출범하였으며, 재단의 재원은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 사측이 공동으로 조성한 약 2천억원 이다. (끝)